

학습목표

1.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유의어와 반의어를 통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3.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 할 수 있다.
4. 선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Theme 2.

<보기> 통한 문학 해석과 빠른 문제해결 (1)

출처: 2021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30~33번 문제

국 어 영 역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 가도 가도 왕십리(往十里) 비가 오네.

웬걸, 저 새야

올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일어나 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별새가 운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데.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 김소월, 「왕십리(往十里)」 -

(나)

어머니 장사 떠나시고 다시 맡겨진 송천동

봄날은 골짜기마다 유난히 햇볕 밝게 내려서

날이 풀리면, 배고파지면 아이들 따라

바위 틈에 숨은 게들 잡으러 개펄로 갔다

게들은 바위 모서리나 청태 낀 비탈에

제 몸 가득 흰 거품 부풀려 먼 수평선 바라보아도

해종일 바람 불고 파도 그치지 않아서

㉡ 송천동, 선뜻 발자국 지워지며 끝없던 모래벌

어느새 그 해 여름 지나고 막막한 가을도 가서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

송천동, 아득한 방죽 따라 구름 몰려와

눈 내려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

국 어 영 역

누구는 어느 집 양자되고 다시 몇 명은
낮선 사람 따라서 바다 건너 떠나갔지만
모른다,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 부질없이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
송천동 송천동 바람 불어 게들 바위 틈에 숨던 곳

- 김명인, 「떠나면 곳 스와니 I」 -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을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심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일제 강점기 백성으로서 겪는 비애와 한(恨)을 나그네의 심정과 비를 연계하여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 ‘한 닷새’ 정도 내리는 비는 여정에 지친 나그네에게 쉴 수 있는 시적 상황이다. 반면,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에는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하는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다. 당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드레와 스무날’ 경은 조수가 낮아 바다로 통하는 물가의 바닥이 드러나 조개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때 내리는 비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반면, ‘초하루 삭망’ 때에는 어차피 조수가 높고 물도 탁하여 일하지 못할 때가 많아 비가 와도 그만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온다고 하고, 가도 그만인 때에는 간다고 하는’ 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대 우리 백성들의 서러움이 화자의 심정과 처지에 맞물려 표현되고 있다.

- ① ‘온다’, ‘오누나’, ‘오는’, ‘울지라도’의 연쇄적 변주를 통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군.
- ② ‘한 닷새’ 오는 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과 유사하겠군.
- ③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정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비 맞아 나른해서’와 ‘온다’를 통해 시적 대상이 여정에 방해가 되는 비를 맞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데.’는 비가 다른 공간에서도 내리는 상황을 화자가 전달하며 공간적 확장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부재한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의 상황 극복 의지를,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준다.
- ③ ㉠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서를, ㉡은 과거 상황에 대한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이르지 못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고뇌를 보여 준다.
- ⑤ ㉠과 ㉡은 모두 그 공간과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화자의 인식 전환의 과정을 보여 준다.

33.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난히 햇볕 밝게’ 내리는 봄날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을 통해 ‘어느 집 양자’로 된 화자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 ④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는 화자의 내면에 남아 있는 그리워했던 순간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를 통해 ‘모른다’고 말하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해설자료

해설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해설 자료]

1. 지문

[1 문단]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
역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
지이다.

- 효율성 시각
-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설명:

- 두꺼운 두 줄로 사이에 있는 내용은 지문입니다.
- 지문 아래에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To-Do List:

- 지문 읽으시고, 아래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문이 이해가 안가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표나 나름대로의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2. 단어 확인

WORD 1 직관-적 直觀的 이라는 것

直 곧을 직 觀 볼 관 的 과녁 적

1.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쳐 지
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WORD 2 호소-력 呼訴力 이라는 것

呼 부를 호 訴 호소할 소 力 힘 력(역)

1.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2. 호소(呼訴)하여 동정(同情)을 불러일으키는

설명:

- 평소에 쉽게 지나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해당 단어의 뜻을 명확히 몰랐다면, 꼭 뜻을 확인합시다.
- 나중에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나름대로 검색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 추가적인 학습 포인트

CHECK 2 OR이 있는 문장구조(복문의 함정)

OR구조로 이어질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OR을 통한 문장구조)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
중력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해당 네모를 친 표현에서 실제로 생략되는 문
'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설명:

- 주어진 문장에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학습 포인트를 읽고, 지문에서 해당 포인트를 직접 확인합시다.
- 복습하신다면, 꼭 별표나 자신만의 표시를 합시다.

4. 학습목표

학습목표

-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 익숙한 문장구조에서 생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 지문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프의 특징
- 개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설명:

- 처음에 정리된 학습목표들은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학습목표를 확인하시면서 앞에 네모 칸에 체크합시다
- 학습목표 아래에 네모 칸에, 해당 학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깨달은 점들을 정리합시다.

31.② 32.② 33.③ 34.②

31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용해서

(가)의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선지가 무엇인지 고르자.

CHECK 1 <보기>로 달려가는 이유



문학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시의 경우, 감정에 몰빵한 문학형식이다. 그래서 논리적 비약도 심하며, 논리적 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서 문제나 <보기>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 '긍정-부정' 관계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주어진 <보기>에 맞추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5지선다에서 선택된 하나의 답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 구성을 위해 대부분의 논리적 구성은 '문학지문' 밖에서 설정된다.

그것이 <보기>일 수도 있고, 혹은 문제 자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먼저 읽어서, 논리적 구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때때로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기> 해석

이 시는 일제 강점기 백성으로서 겪는 비애와 한(恨)을 나그네의 심정과 비를 연계하여 그려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백성들은 비애와 한(恨)을 겪었다.

WORD 1 한이란 무엇인가? 恨 한 한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1. 한(恨), 한탄(恨歎 · 恨嘆)
2. 유감(遺憾)
3. 한하다(恨--: 몹시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원망스럽게 생각하다), 원통하다(冤痛--)
4. 뉘우치다, 후회하다(後悔--)
5. 원망스럽다(怨望---), 원망스럽게 생각하다
6. 미워하다
7. 억울하다(抑鬱--)

원래 한(恨)은 정서 중 하나로 해석하지만, 사전의 해석을 따르면 일제 강점기의 백성들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대놓고 적지 않았다.

나그네의 심정과 비를 사용하여 백성들의 한과 비애를 표현했다. 이 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은 나그네와 비의 관계다.

이 시에서 ‘한 닷새’ 정도 내리는 비는 여정에 지친 나그네에게 쉴 수 있는 시적 상황이다.

WORD 2 닷새

1. 다섯 날.
2. 매달 초하루부터 헤어져 다섯째 되는 날.

5일 정도는 비가 내릴 때, 나그네는 쉰다. 다시 말해, 5일 동안 내리는 비는 나그네를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 된다.

반면,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WORD 3 추적추적

1. 비나 진눈깨비가 자꾸 축축하게 내리는 모양.
2. 자꾸 물기가 축축하게 젖어 드는 모양.

5일 동안 내리는 비와 달리,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나그네가 여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에는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하는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다.

- 관습적 표현: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
이 시에는 관습적 표현을 사용한다.

당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드레와 스무날’ 경은 조수가 낮아 바다로 통하는 물가의 바닥이 드러나 조개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때이다.

여드레 스무날에는 어민들이 뱃에 나가 조개 채취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내리는 비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여드레 스무날에 비가 오면, 어민들은 뱃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오는 비는 생업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반면, ‘초하루 삭망’ 때에는 어차피 조수가 높고 물도 탁하여 일하지 못할 때가 많아 비가 와도 그만이다.

WORD 4 조수

1. 해양: 밀물과 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해양: 아침에 밀려들었다가 나가는 바닷물.
3. 해양: 달, 태양 따위의 인력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바닷물.

초하루 삭망은 썰물과 밀물이 크고, 바닷물이 탁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일을 못한다.
따라서 이 때 오는 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러한 표현에는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온다고 하고, 가도 그만인 때에는 간다고 하는’ 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대 우리 백성들의 서러움이 화자의 심정과 처지에 맞물려 표현되고 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여드레 스무날’이고, 비가 가도 그만인 때는 ‘초하루 삭망’이다.

근데 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여드레 스무날에 비가 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맘대로 안되는 상황을 통해 백성들의 서러움이 표현된다.

한편 화자의 심정과 처지가 당대 백성들의 서러움과 맞물린다고 한다.

WORD 5 맞물리다.

- 아래윗이나 입술, 주둥이, 부리 따위가 마주 물리다. ‘맞물다’의 피동사.
- 끊어지지 아니하고 잇닿게 되다. ‘맞물다’의 피동사.

- 다른 물체에 마주 물리다. ‘맞물다’의 피동사.
- 무엇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어우러지다.

다시 말해, 화자의 심정과 처지가 당대 백성들의 서러움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가)의 해석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비가 온다. 오는 비는 한 5일정도만 오는 비면 좋다.
:비가 오니까 여행을 못한다.

5일 정도는 비가 내릴 때, 나그네는 신다.
다시 말해, 5일 동안 내리는 비는 나그네를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 된다.

①번 선지
‘온다’, ‘오누나’, ‘오는’, ‘올지라도’의 연쇄적 변주를 통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군.
: 비가 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 비가 온다는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반복의 효과를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WORD 6 부각하다 浮 擗 부 刻 새길 각

- 바탕이 되는 물건(物件)의 거죽에 도드라지게 새긴 조각(彫刻).
- 어떤 사물(事物)을 특징(特徵)지어 두드러지게 함.
- 주목받는 사람, 사물, 문제 따위로 나타나다.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 오더라도 한 5일 정도만 오면 좋지. 다시 말해, 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5일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한 5일 정도만 오면 좋지라는 가정적 표현을 사용한다.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①가도 가도 왕십리(往十里) 비가 오네.

여드레 스무날엔 비가오고 초하루 상망이면 비가 간다고 한다. : 이러한 표현에는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온다고 하고, 가도 그만인 때에는 간다고 하는’ 비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대 우리 백성들의 서러움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여드레 스무날’이고, 비가 가도 그만인 때는 ‘초하루 삭망’이다.

②번 선지

‘한 닷새’ 오는 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은,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과 유사하겠군.

- 5일 동안 내리는 비는 나그네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 된다.
- 초하루 삭망은 썰물과 밀물이 크고, 바닷물이 탁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일을 못한다. 따라서 이 때 오는 비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 다시 말해, 물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초하루 삭망’에 오는 비를 보며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또한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이므로 초하루 삭망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한 닷새’ 오는 비에 대한 화자의 심정은,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즉, 옳지 않은 선지는 2번이다.

CHECK 2 오답의 근거를 분명하게 잡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합리적 상식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오답의 근거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답을 선택한 이후에, 남은 선지는 참인 내용 혹은 추론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2번 선지가 거짓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다면, 남은 3, 4, 5번 선지는 남은 시의 해당 부분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빠르게 국어 문학을 푸는 무기를 나름대로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다.

다만 이런 식의 선지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기억해주시길 바라는 건, 여러분의 합리적인 상식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국어 시험은 합리적 상식을 바탕으로 누구나 납득 가능한 선지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합리적 상식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고른 선지를 설명할 때,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때, 이 풀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③번 선지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정과 처지를 드러내고 있군.

웬걸, 저 새야

올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일어나 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별새가 운다.

④번 선지

‘비 맞아 나른해서’와 ‘운다’를 통해 시적 대상이 여정에 방해가 되는 비를 맞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
 비가 와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⑤번 선지,
 ‘천안(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젖어서
 늘어졌다네.’는 비가 다른 공간에서도 내리는 상황을
 화자가 전달하며 공간적 확장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 이 시는 일제 강점기 백성으로서 겪는 비애와 한(恨)을
 나그네의 심정과 비를 연계하여 그려내고 있다.

30번 문제 (형식적 문제)

	수단(표현)	목적(표현의 효과)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②	외적 대상에 투영하여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③	평사로 사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심표를 사용하여	여유를 느끼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유사한 동사 구조를 활용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번 선지에 대해서, 문학개념어를 확인하자.

WORD 7 객관적 상관물(客觀的 相關物)

창작자가 표현하려는 자신의 정서나 감정, 사상 등을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표현하는 사물이
 나 사건

웬걸, 저 새야
 올려거든
 왕십리 건너가서 올라나 다고,
 비 맞아 나른해서 별새가 운다.

31번의 ④번 선지
 ‘비 맞아 나른해서’와 ‘운다’를 통해 시적 대상이 여정에
 방해가 되는 비를 맞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추적추적 계속 내리는 비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시적대상인 새와 별새, 혹은 별과 새는 비를 맞고 운다.
 나 역시 암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는 새가 왕십리
 건너가서 울기를 바란다.

구름도 산마루에 걸려서 운다.

구름 역시 운다.

가끔이지만, 운 좋게도 (가)만 보더라도 문제를 풀릴 때가
 있다.

이제 32번 문제를 보면, ㉠, ㉡의 의미를 파악해야한다.
 그리고 ㉢은 (나)에 있다.
 물론 우선적으로 (가)에 있는 ㉠에서 선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바로 (나)로 넘어가서 ㉡을 동시에 생
 각하면서 풀 수 있다.

또한 33번 문제는 (나)만 보고 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
 에, 이쯤에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

(나)의 해석

어머니 장사 떠나시고 다시 맡겨진 송천동
봄날은 골짜기마다 유난히 햇볕 밝게 내려서
날이 풀리면, 배고파지면 아이들 따라
바위 틈에 숨은 게들 잡으러 개펄로 갔다

어머니가 장사하러 가면
봄날에 햇볕이 들고 날이 풀려서, 아이들 따라 바위 틈에
있는 게를 잡으러 갔다.

게들은 바위 모서리나 청태 낀 비탈에
제 몸 가득 흰 거품 부풀려 먼 수평선 바라보아도
해종일 바람 불고 파도 그치지 않아서
㉠송천동, 선뜻 발자국 지워지며 끝없던 모래벌

게들이 바위 모서리에 있고
바다 끝을 바라봐도,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오니 파도도
계속 친다. 그리고 모래벌

어느새 그 해 여름 지나고 막막한 가을도 가서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
송천동, 아득한 방죽 따라 구름 몰려와
눈 내려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

여름을 생략하고 가을도 생각하고, 겨울이 오면
물결은 차가워지고 사람도 없는, 송천동에는 구름이
몰려오고 눈이 내린다.

누구는 어느 집 양자되고 다시 몇 명은
낯선 사람 따라서 바다 건너 떠나갔지만
모른다.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 부질없이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
송천동 송천동 바람 불어 게들 바위 틈에 숨던 곳

또 사람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몇 명은 입양을 갖고
다시 몇 명은 낯선사람을 따라서 바다 건너 갔다.
아직도 파도가 칠 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그리움이
온다. 과거 송천동의 모습이 떠오른다.

32번 문제

	㉠	㉡
①	부재한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준다.	부재한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주지 않는다.
②	화자의 상황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준다
③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과거 상황에 대한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④	아르지 못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고뇌를 보여 준다.	아르지 못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고뇌를 보여 준다.
⑤	그 공간과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화자의 인식 전환의 과정을 보여 준다	그 공간과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화자의 인식 전환의 과정을 보여 준다

㉠의 주된 정서는 비애이며 한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비가 오는 날씨를 통해 표현했다. 하지만 화자에게는 날씨를 바꿀 수 능력이 없다. 아무리 당시 현실이 안 좋아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답답한 것이며 한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극복할 수 있는 의지나 혹은 어떤 열망의 정서로 이어지지 않으며, 자신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통을 겪더라도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감정을 가질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미 화자는 잘 알고 있다. 인식 전환이 있을 리가 없다.

㉡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의 대상은 송천동 모랫벌이다. 물론 현재 그 곳에 파도가 계속 치는 것은 모르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 바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WORD 8 부질없다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다.

파도가 와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리움이 와도 쓸모가 없다는 건, 자신이 가진 그리움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송천동에 대한 그리움에서, 돌아가겠다는 열정은 없으며, 바다가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적인 공간도 아니다. 물론 인식전환이 있을 리가 없다.

33번 문제

	수단 (표현 혹은 대상)	목적 (효과 혹은 대상의 의미)
①	유난히 햇볕 밝게 내리는 봄날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②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을 통해	'어느 집 양자'로 된 화자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④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는	화자의 내면에 남아 있는 그리워했던 순간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를 통해	'모른다'고 말하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번 선지에 대해서

선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관계는 수단과 목적이다. 하지만 오답선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논리관계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즉, 아이들 중 일부가 어느 집 양자로 간 것이지, 화자가 양자로 간 것이 아니다.

한 편으로 화자는 겨울이 지나고, 송천동에 대해 의미 없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절망감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해석이다.

어머니 장사 떠나시고 다시 맡겨진 송천동
봄날은 골짜기마다 유난히 햇볕 밝게 내려서
날이 풀리면, 배고파지면 아이들 따라
바위 틈에 숨은 게들 잡으러 개펄로 갔다

‘유난히 햇볕 밝게’ 내리는 봄날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 게를 잡으러 나간 모래벌을 계속 떠올린다.

어느새 그 해 여름 지나고 막막한 가을도 가서
물결은 더욱 차갑게 출렁거리고 인적조차 끊어지면
송천동, 아득한 방죽 따라 구름 몰려와
눈 내려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

‘또 한 해 겨울 돌아오던 곳’은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음을 드러낸다.

누구는 어느 집 양자되고 다시 몇 명은
낮선 사람 따라서 바다 건너 떠나갔지만
모른다,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 부질없이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
송천동 송천동 바람 불어 게들 바위 틈에 숨던 곳

‘내게 와 부딪친 그리움도’는 화자의 내면에 남아 있는 그리워했던 순간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도 그 물결에 젖고 있을지’를 통해 ‘모른다’고 말하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